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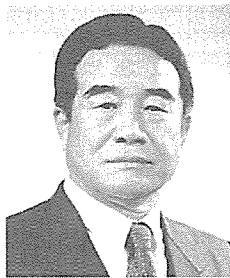
조선조 농업과학기술의 성립과정

# 세종대 농서 「農事直說」이 바탕

옛날의 농업과학기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옛 농업과학기술서, 곧 농서(農書)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우리 농서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으며 고려 초기에 와서야 임경화(林景和)의 묘비에 쓰여진 금석문(金石文)을 통해서 농서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의 비문에 '궁중에 의상을 담당하던 임경화가 북송(北宋) 초 중국의 손광헌(孫光憲)이 저술한 양잠기술서(書)인 잠경(蠶經)을 고려 인종(仁宗) 5년(1127)에 방언(이두)으로 번역하여 이를 중외(中外)에 배포함으로써 드디어 양잠기술이 흥하여졌다'고 써있다. 이 비문을 통해 고려시대에 중국의 농서를 이용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 농서 이용이 보다 확실한 것은 고려 충목왕이 승하하자 시중(侍中), 이암(李焜)이 충정왕(1349~1351년)을 받들어 원(元)나라에 갔다가 귀국길에 1273년 원나라가 편찬한 「농상집요」(農桑輯要) 한질(7권)을 가져와 합천군수 강시(姜耆)가 이를 얻어다 1372년 목은 이색(李穡)의 후서(後序)를 붙여 강양(江陽 현 합천)에서 복간, 권농의 교재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중국농서는 그 저술기반이 어디까지나 중국의 풍토를 기반으로 편



金榮鎭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찬된 것이라 기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조선조 태종은 어명으로 "중국의 옛 농서에서 간절히 쓰일 말만을 취하여 향언(鄕言 이두)으로 주(註)를 달아 인쇄 배포함으로써 백성들이 농본(農本)에 힘쓰도록 가르치라" 하였다.

## 중국 農書 간추려 발간

이에 대제학 이행(李荇)과 의정부 사인(舍人) 곽존중(郭存中)이 중국의 「농상집요」 작물(作物)부분을 초록하고 이에 이두문 풀이를 곁들여 1415년 「농서집요」(農書綱要)를 편찬 간행하였고 한명회의 종조부로 당시 우승지였던 한상덕(韓尙德)이 「농상집요」 양잠부분을 초록하고 이에 이두로 주해하여 같은 해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를 편찬·간행하였다.

이상의 사례(史例)를 요약하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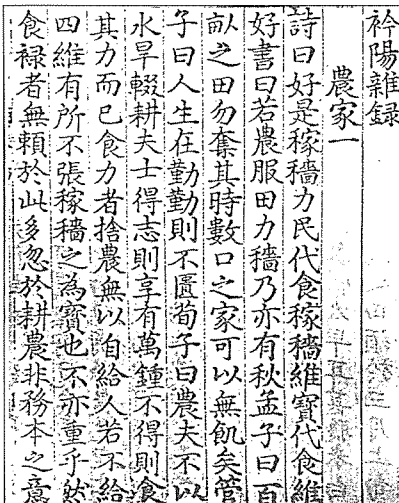
농서를 원형대로 이용하였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만을 초록하였거나 이에 알기 쉽도록 이두풀이를 덧붙여 농업교재로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중국농서의 초록본이라 하더라도 중국농서는 어디까지나 중국 농민을 위해 중국의 풍토를 중심으로 쓴 것이라 풍토와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종은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농서를 편찬코자 1428년 두차례에 걸쳐 충청, 경상, 전라도 감사에게 영을 내려 각 도내의 늙은 농부들에게 오곡에 알맞는 토성, 갈고 씨뿌리고 거두는 방법 등을 물어 이를 책으로 엮어 올리라 하였다. 이 3개도에서 전달된 주요 작물의 재배법은 병조판서 정초(鄭招)와 종부소윤(宗簿小尹) 변효문(卞孝文)에게 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토록 하고 이를 1429년에 1천부를 인간하여 배포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풍토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농사직설」은 우리 농학사(史)상 세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농사직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들은 관리들이었지만 그 자료를 제공한 실질적 저자들은 당시의 경험 많은 이들 선진 농부들이었다는 것, 둘째로 「농사직설」의 농업기술은 편찬 당시의 우리 농업기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 조선조 초기에는 중국의 옛 농서에서 필요한 것만을 골라

이두문자로 토를 달아 인쇄 배포하여 백성들이 농본에 힘쓰도록 했다.

그 후 세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1429년 발간 배포했으며 1483년엔 강희맹(姜希孟)이 「금양잡록」(衿陽雜錄)이라는 농서를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발간된 농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발전되어 왔다.



1483년 편찬된 「금양잡록」

라 그 내용에 나오는 2년3작(作)의 작부방식이나 객토 등은 15세기 우리 농업과학의 실상이라는 것, 셋째로 이때부터 우리 농학이 중국 농학의 예측에서 차츰 벗어나 스스로 학문적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 강희맹은 「衿陽雜錄」 펴내

1446년의 한글창제가 중국으로부터의 문자의 독립이라면 이보다 앞선 「농사직설」은 중국 농학의 예측에서 벗어나 우리 농학이 차츰 독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사직설」 이후 1483년 강희맹(姜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이 편찬되어 풍토농서의 위치는 계속 굳혀져왔다. 그러나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이 편찬되었다고 그

이후 중국농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농학의 범위가 넓은데다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은 작물 중심이라 원예, 축산부분은 계속 중국농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483년에 초록 편찬된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는 당나라 말기 중국의 한악(韓鄂)이 저술한 「사시찬요」(四時纂要)를 일부 초록한 것이며 1636년 이서(李曙)가 편찬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등도 모두 중국농서의 초록본들이다. 다만 한글창제 이후에는 이두풀이가 한글풀이(諺解)로 바뀐 차이가 있다. 곧 중국농서의 초록본 농서는 우리 농서를 편찬하는 과도기 농서로 우리 농학 중 발전이 덜된 분야일수록 계속 필요하였다. 그러다가 1655년 신숙(申澍)의 「농가집성」(農家集成) 이후에 와서야 중국농서의 복간 이용이나 초록본 이용이 사라지고 우리식 풍토농서의 편찬 이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곧 1676년 박세당(朴世堂)의 「색경」(穡經), 1715년경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1750년대 신돈복(辛敦復)의 「후생록」(厚生錄), 1800년대 초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 1830년경 최한기(崔漢綺)의 「농정회요」(農政會要), 1845년경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

志)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농서에 서술의 내용까지 모두가 우리의 과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풍토 중심의 농서를 쓰고자 하였지만 이에서 부족한 것은 불가피하게 중국농서를 인용하였다. 예컨대 「산림경제」 벼농사 부분의 중국농서 인용은 19% 뿐이나 작물전체의 보통 농사부분은 총 인용문헌수 2백85개 조항 중 33.7%인 96개 조항이 중국문헌이며, 채소부분은 이보다 많은 51.6%, 과수부분은 52.8%, 화훼부분은 63.3%나 중국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곧 국내에서 간절히 필요한 부문일수록 독자적 국내기술이 발전되어 중국농서의 인용비율이 낮고 그보다 덜 발전된 부분일수록 중국농서 인용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881년 처음으로 안중수(安宗洙)의 「농정신편」(農政新編)이 편찬되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구 농학을 도입한 일본농서의 초록본이었다. 여기에 비로소 식물의 호흡작용이나 화학원소로 소다(曹達), 마그네슘(麻屈尼矢亞) 등 현대농학이 소개된다. 그러면서 15세기에 중국 농학을 도입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농서의 초록본 이용의 과정을 거쳐 서구 농학을 우리 농학에 도입·이용하게 된다. ㉟